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김철욱(6575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5809호

시행일자 2024. 8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’ 제도기간 종료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가. 대의협 제821-1944호(2024. 5. 21.)

나. 대의협 제821-5388호(2024. 8. 6.)

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(TF)-430(2024.8.16.)

3.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, 우리협회는 2024. 5. 20.부터 요양기관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,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동 제도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기간(2024.5.20.~ 2024.8.20.) 운영을 안내한바 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 제도의 **제도기간이 2024. 8. 20.부로 종료**됨에 따라 「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’ 안내문」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바, 동 제도의 제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(1차 30만원, 2차 60만원, 3차 100만원) 외에도 요양급여 기준 위반에 따른 삭감, 환수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
5. 이에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 내용 -

구분	내용
본인확인 관리*	○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반드시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 후, 그 결과를 <b>전산 (요양기관 정보마당) 수진자자격시스템 본인확인여부 체크</b> 또는 <b>진료기록부 기재 후 보관</b>
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안내	○ <a href="http://www.youtube.com">www.youtube.com</a> >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> 동영상 > [진보인사이드] 이젠 잊지않게, 내 폰에 저장~!(feat.모바일 건강보험증) ※ (링크) <a href="https://youtu.be/KGZXfOIs3B4?si=v_8ghslvTKpMKajy">https://youtu.be/KGZXfOIs3B4?si=v_8ghslvTKpMKajy</a>
제도 관련 Q&A	① 요양기관 정보마당> 공지사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> 국민과함께 > 뉴스/소식 > 공지사항

\* 본인확인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, 자격 확인은 모든 환자에게 매번 진료시마다 확인 필요

## □ 본인확인 수단 및 예외대상

본인확인 수단	
신분증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7조(일부개정)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</li> <li>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시 인정), 국가보훈 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건강보험증 등</li> <li>※ 행정·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</li> </ul>
전자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신분증,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,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</li> <li>(확인서비스) 정부24, PASS, KB뱅크(국민지갑), 삼성윌렛 등</li> <li>√ (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)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</li> </ul>
※ 신분증 사본(캡처, 사진 등)은 인정 불가	

본인확인 예외 대상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</li> <li>19세 미만인 경우</li> <li>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</li> <li>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</li> <li>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및 회송 받는 경우</li> <li>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</li> <li>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</li> <li>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</li> <li>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</li> </ol>	

### ☞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

-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등 모바일 활용 안내
  - 진료비를 전액 부담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하고,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의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요양기관에서 정산(공단부담금 환불)해줄 수 있음을 안내
- ※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요양급여의 신청)

### ☞ 본인확인 결과 관리 방법

신분증 확인 후

- 요양기관정보마당 /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본인확인완료 버튼 체크, 또는
- 진료기록부 등에 본인확인 내용 기록

붙임 : 1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.

2. 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’ 안내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 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